

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취!



지부교섭 속보

8호

2024.06.13(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8차 지부교섭 : 사측 2차 제시안 제출]

핵심만 비껴간 2차 제시안!

제출한 내용은 많아졌지만 질적으로 나아진 내용 없어



2주간의 준비시간, 기대했지만..

지난주 현충일 관계로 2주만에 교섭이 열렸다. 권현구 지부장은 “2주 동안 얼마나 진전된 제시안을 준비하셨을지 기대하고 나왔다.”며 사측 2차 제시안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사측이 제출한 2차 제시안은 내용만 많아졌을 뿐, 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

핵심내용에 진전 있어야

사측은 임금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과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는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에게 번역된 문서를 제공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은 양이 방

대해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전보건확보의 무에서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 미흡하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 빠진 것이다. 이렇게 핵심만 비껴간 제시안은 교섭 진전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시간 많지 않다!

금속노조와 지부 투쟁방향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 나온 제시안은 지부의 투쟁방향을 더 강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원만한 타결이 될지, 치열한 투쟁이 될지 사측의 제시안에 달려있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 차기교섭 : 6/20(목) 14:30 리택

8차 교섭 속기록

질적으로 개선된 제시안 제출해라

사 : 교섭위원 자리 세팅을 각 회사와 지회가 서로 마주보게 했는데 맘에 드셨으면 좋겠다. 여건상 임원 참석이 어려운 점과 자리가 협소해서 교섭장소를 지부 사무실로 바꾼 점 이해해줘서 감사하다.

노 : 2주 동안 얼마나 진전된 제시안을 준비하셨을지 기대하고 나왔다. 어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가 있었고 다음주에 지부 확대간부대회가 있다. 투쟁방향이 잡히고 있다. 오늘 제시안 보고 지부도 투쟁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생각이다.

〈사측 2차 제시안 제출〉〈정회〉

노 : 2주 동안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 1차 제시안보다 2차 제시안이 양은 늘어난 것 같지만, 질적으로는 진전이 없다. 노조 요구안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살짝 비껴가고 있다. 안전보건확보의무는 노사가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전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중앙교섭 눈치 보지 말고 지부 교섭에서 신속하게 조기에 타결볼 수 있는 진전된 제시안을 머리 맞대고 만들어주셔라. 통일요구, 중앙요구는 중앙교섭 흐름대로 가는 거라고 봐도 되나?

사 : 중앙교섭은 2개사만 해당하고 나머지 7개사는 중앙교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 안이 나온 것도 파격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은 마음에 안들 수 있지만 사측은 중앙교섭 미참사 7개사가 동일한 수준으로 제출한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본다.

노 : 중앙교섭 수준으로 제시안 나온 것이 고무적이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 같거든 중앙교섭 합의안으로 하자고 하든가, 아니면 중앙교섭 흐름

과 무관하게 제시하든가 해야 한다. 중앙교섭에 참여 안하는 사업장이 7개나 되니까 오히려 중앙교섭과 무관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사 공동 요구는 뭐가 부담스럽나? 이해하기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에 대해서 ‘연내 제출’한다는 내용을 뺐 이유는?

사 : 요구의 핵심이 ‘연내 제출’인 것 같은데 아직 입장 제시하기 어려웠다.

노 : 노사 공동선언은 연내든 언제든 준비되면 하면 된다. 연내 제출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내용에 동의하느냐가 핵심이다. 이주노동자 차별금지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합리적인 이유인가?

사 : 생산성이 떨어지면 차등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노 : 이주노동자가 생산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사내하청 지도 감독한다는 내용을 권고로 제시한 이유가 뭐가?

사 : 하청의 소속 관리자가 감독해야 한다.

노 : 지금 원청사들 사내하청 업무 감독 안하나? 이걸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이주노동자 번역문서 제공은 알 권리 때문에 하는 요구인데 가장 중요한 취업규칙을 양이 너무 많아서 뺐다는게 합리적인가? 금속산업 최저임금 확장은 단서조항 삭제하자는 요구인데 추후 제시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안전보건확보의무요구안의 핵심은 노사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걸 빼놓으면 어렵다. 마지막으로 임금인상 제시는 안할건가? 지부교섭에서 제시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실망스럽다.